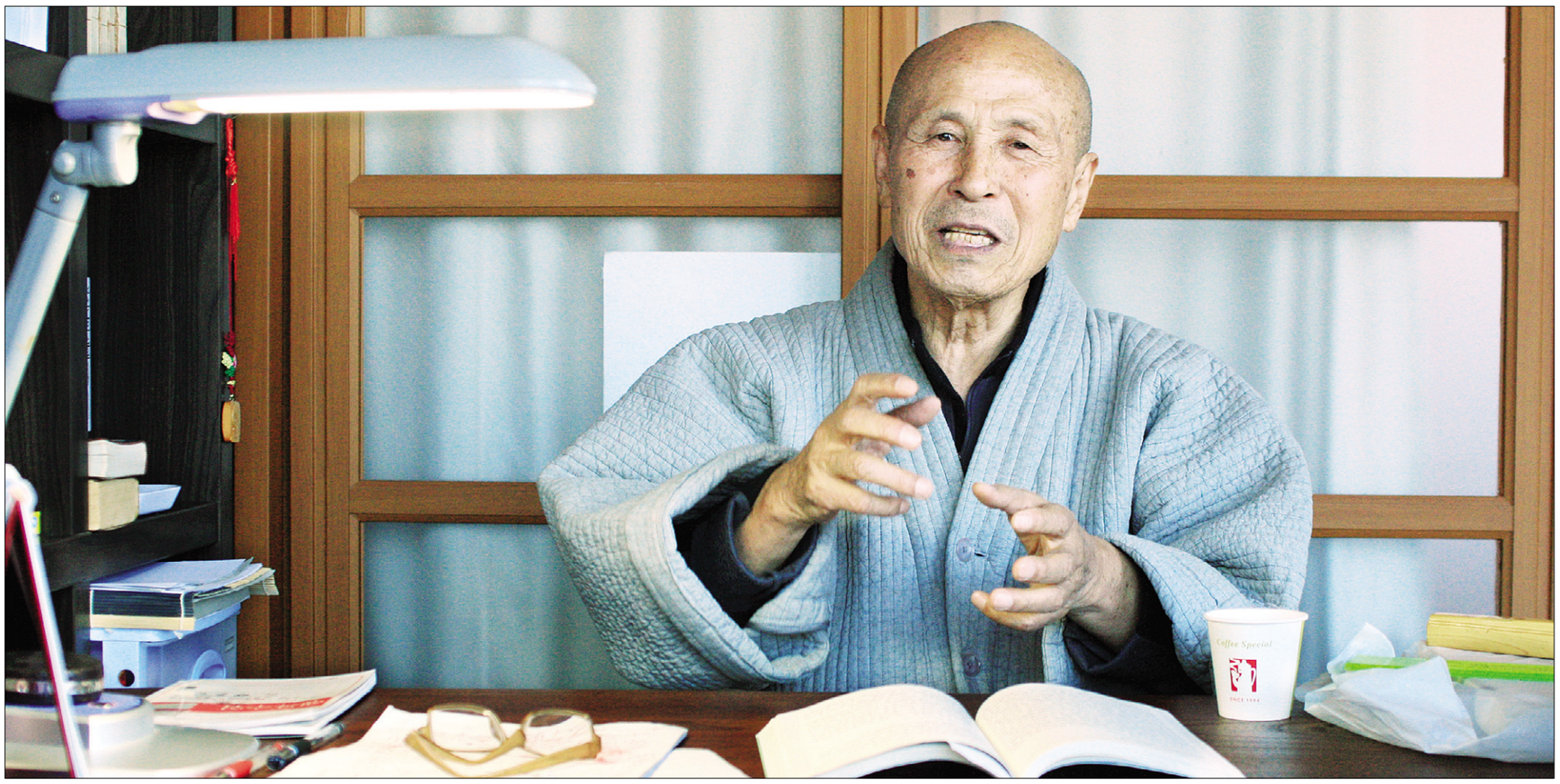


성원 스님은 ...
1958년 불국사 석굴암으로 출가하여 다음해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대종사의 문하로 입실했다. 1961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받은 뒤 30여 년 동안 각종 종무소임을 맡았다. 소임을 맡은 가운데 〈금강경〉 10년 독송의 발원을 성취했고 일종식과 장좌불와의 관음100일기도 성취, 1000일 간의 〈반야심경〉 사경과 〈금강경〉 〈법화경〉 사경 등을 원만 회향 했다. 1988년 이후 제방 선원과 토굴 등지에서 수행에 전념해 오고 있다.

산청 안적사 주석
성원 스님

헤엄 못 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할 수 있나?

'능엄경'의 수행법 체계적 정리 위해 '집필삼매'

관습화 된 수행풍토 혁신할 전문 수도장 필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겨울, 시절은 이미 3월 중순이건만 '폭설'이 산야를 뒤덮었고 길도 끊어버렸다. 부득이 선지식을 뵙기로 한 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 늦게 달려갔다. 삼각산은 하얀 눈을 덮고 있었지만 지리산은 그렇지 않았다. 더러 응달 계곡에 잔설이 흩날리고 있을 뿐 웅혼한 산맥은 봄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지리산 자락, 경남 산청은 나라 안에서 소문난 매화나무가 많은 곳이다. 남명 조식 선생의 기개가 서린 남명매와 하즙 선생의 원정매, 통정공 회백과 회중 형제의 손길을 600년이 넘도록 지키고 있는 정당매가 대표적이다. 산청에 접어드니 길가에 서 있는 매화나무들은 이미 실눈을 뜬 몽우리를 보여주었다. 향기도 코끝을 건드리는 듯했다.

선지식은 매화다. 찬 공기를 안으로 들이마시고 온갖 세파를 속살로 섭수시키며 우주의 진리를 응결한 선지식은 이른 봄의 매화처럼 은은하고 감미로운 법향을 세상에 내뿜기 때문이다. 청결한 코를 가진 사람은 그 법향에 감읍하고 삶의 지침을 진리의 세계로 향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며 선지식의 처소를 찾아갔다.

각암성원(覺庵性元 · 83) 스님은 산비탈 감나무 과수원 언저리에 새로 지은 절집에서 원고를 쓰고 있었다. 집필삼매에 빠진 스님의 귀한 시간을 침범했다.

"3년 전에 책이라고는 처음으로 만들어 본 〈수행, 날개를 달다〉(현대불교)에서 다 못한 말들이 있고 보완해야 할 것도 있어서 새로 원고를 다듬고 있어요."

〈수행 날개를 달다〉는 〈능엄경〉에 바탕한 수행법을 안내하는 책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원 스님은 이 책의 편집후기에서 "오늘 내가 한사코 이 글을 남기고자 함은 이 길을 몰라 방황하는 납자들을 위함이고, 후일에 다시 이 사바에 돌아와서 이 수행요서를 젊어서 빨리 접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음 생의 공부를 위해 금생에 한 권의 책을 묶었다는 토로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절실하게 드러내는 대목이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여러 인터넷 카페에 게시돼 있다.

-어떤 내용을 보완하시는 겁니까?

〈능엄경〉을 반야의 관점에서 풀이한 것이 많아 경의 근본을 편협하게 해버린 것이 안타까워요. 〈달마보전〉과 소능 선사의 〈진수어록〉 등을 낱낱이 참고해 '능엄선'의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갖지 않은 사람이 수행을 잘해 도를 이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체가 공(空)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모르고 공으로 이해해 버리려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따져보고 명확한 길을 밝혀야 합니다. 내가 깨쳐 부처를 이뤘다면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옛 스승들의 말씀을 들어 증거를 해야지요. 이러한 가르침이 전해 오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고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감사할 일입니다.

-수행의 궁극이 깨달음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지만 수행에 대한 방법론과 정신자세 등은 사람마다 이해하는 차원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공하다는 이미 내려진 '결론'에 미리 도취되기보다 어떻게 수행하여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화두선이 보여준 모순들이 다 이런데서 온 것입니다. 반야의 강성함에 얽매여 각각의 경전이 가지고 있는 종지를 뭉개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이라고 말하는 진성(眞性, 본래의 마음)을 어떻게 영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몸과 진성이 본래는 둘이 아니지만, 중생은 업식과 습기로 인해 진성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수정이 되어 열 달 동안 태(胎) 속에 있던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 그 정수리가 말랑말랑 합니다. 자세히 보면 계속 달싹달싹 하거든요. 그리 우주의 기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성한 기운 즉 진성이 영입되는 것이 길지 않고 자라면서 머리가 굳어지고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막혀버리거든요. 〈능엄경〉 제7권에 나오는 대력벽우가 바로 이 정수리를 통해 들어오는 진리의 상징인 것을 알면 이해가 쉬워요. 경에 나오는 대력벽우의 똥이 바로 정수리를 통해 들어온 진리가 몸으로 들어와 뱃속에 우글우글 떨어지고 온 몸을 뚫고 것이 거든요. 〈법화경〉 '신해품'에 나오는 '궁자의 비유'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결별한 아들이 50년 만에 아버지에게 왔는데 아들은 아버지인 줄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맞아들이지만 아들은 놀라 도망가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차츰차츰 아들이 가까이 오게 하는 방편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진성을 영입하는 것도 이 비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진성을 받아들여 우리의 습기(習氣)를 하나하나 지워내는 것, 그 차츰차츰의 과정이 수행인데 거기에 어긋남이 있으면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수행은 몸을 바르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너도나도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몸을 통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유식학에서 7식과 8식 등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일체화를 부정하고 마음만으로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따라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정확한 수행의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는 〈능엄경〉의 수행법이 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